발행인 칼럼

CTN 2022년을 도약의 발판 삼아 더 높게 뛸 터

가금현 발행인

CTN은 인터넷 종합일간신문이라는 수식어를 내 걸고 힘차게 달려 와 올해 11년이 된다.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은 아 니었지만 10년의 세월을 견디고 보 니 이제는 지역 언론으로서 자리매 김을 넘어 전국을 넘볼 수 있는 수 준에 이르게 됐다.

창간 11년을 맡게 된 CTN은 올 2022년 임인년 호랑이띠 해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더 강하게 높게 뛸 것이다.

지난해 CTN을 사랑해주고 열정적으로 후원해주고 있는 각계 각층 의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와 2충1효 문화연구원을 통해 각 지역의 환경 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뒤처진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각오를 다진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언 론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 리 CTN은 타 언론과 차별화된 계 획과 취재 보도로 더 많은 주민들에 게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을 뽑으라면 비판과 홍보라고 한다면 우리 CTN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3월 9일, 제8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6월 1일 실시된다.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에 우리 CTN은 편향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취재 보도할 것이며, 후보에 대한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자격조차 안 되는 후보를 뽑아 한 지자체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상황을 알기 때문이다.

대선의 경우 각 당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및 자질론에 대해 중앙언론이 앞장서 보도할 것이지만 우리 CTN은 각 시군의 기초의원, 시군 단체장, 시도의 광역의원과 광역단체장에 나서는 후보의 됨됨이를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유권자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할 방침 이다.

아울러 CTN과 참교육을 선도하는 CTN교육신문은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간과 지면을 내줄 계획이다.

많은 후보자들이 CTN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마음껏 발휘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이를 통해 일꾼을 뽑 을 수 있는 언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과 오미크론 변이 감염 으로 사회, 경제, 교육, 문화예술 등 전 분야가 무너지고 있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만 않 으면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다.

사 설

교육부, 변화·책임 아닌 '기존 정책 대못 박기' 되풀이

교육부는 지난 5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2022 교육과정 개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계는 변화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기존 정책 나열 및 대못 박기를 되풀이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여전히 교원들은 방역에 목매고 확진자가 생기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데 기존 방안인 방역 인력, 물품 지원 확대로 어떻게 일상회복과 학습 결손 해손이 가능하겠느냐며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을 전담하는 이원체제 구축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제고와 방역패스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방역 패스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학교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시설의 경우 적용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요구하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현재 전국에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에 투자하겠다거나 1학기 전까지 979개교 학급증설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증설된 학급을 담당할 정규교사 충원 계획이 전무해 결국 비정규 기간제교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는 근본대책 없이 교사를 동원한 방과 후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사업으로 학습 결손 회복이 되겠는가. 교육부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 거부해 '깜깜이 학력'을 조장할 게 아니라 전체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도 2025년 전면 적용을 기정 사실화 하며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만 확대하는 기존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고, 교사 자격 없는 외부 인사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입법만 추진하지 말고 제발 정규교원 수급방안,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 등을 먼저 내놓고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교육실습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발표 내용을 반복할 게 아니라 시범운영 학교 여건 조성방안, 실습담당 수석교사 확대 배치 및 실습담당교사 업무 경감 대책 등 한 단계 나간 업무계획이 나왔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정책 '대못 박기'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친정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해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정파·이념을 초월해 독립성, 중립성을 띤 위원회가 되도록 법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자칫 국가의 교육책 무를 약화시켜 지역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교육감자 치'만 강화하는 교육 이양을 중단 하고, 보통·기본교육의 균등한 보 장을 위한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 하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교 육분권, 교육자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이 단 한 줄도 없다는 점이다. 교원을 교육 변화와 책임의 주체로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진정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편향적 '정 책 대못 박기'는 중단하고, 학교 여 건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부터 살펴 야 할 것이다.

CTN 논단

이스라엘의 어머니 교육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의 크기(21.600키로제곱미터)의 인구 750만명의 세계최대 강대국이다.

탈무드는 5000년 동안 내려온 유대인들의 교과서이자 세계인들이 탐독하고 있는 성경에 버금가는 고전이다. 1948년 5월 14일 세계 각지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막 국가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농업국가이며 최첨단 기술 국가이다. 이들 민족에게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 하느님은 모두를 주시지 않는 인색하시며 가장 공평하신 분인듯하다. 유대인 어머니들이 결혼을 앞둔 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할까 한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는 하녀가 될 것이다. 네가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해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네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우줄 것이다." 이미 알려진 유대인 어머니의 교육 내용의 일부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정의 붕괴, 부부 간, 가족 간 갈등의 책임은 우리 부모들의 책임도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부부는 가정의 기둥이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격려 하지만 불행한 부부는 서로를 공격하고 무시한다. 이기심과 무관심이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건설에 우리 어머님들의 공로는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어머니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제 가정 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인성, 교양, 전문 교육으로 글러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핵심역량이다.

[만물창고]

천재불용(天才不用)

한성진
CTN교육신문 편집국장

재승박덕(才勝薄德)은 재주는 많으나 덕(德)이 부족함을 일컫는 사자성어(四字成語)다.

아는 것이나 능력은 뛰어나나 인품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며, 재조(才操) 곧 재주가 덕(德)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자식을 천재로 키우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회를 이끄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덕이 높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천재를 부러워하지만 천재는 오래가지 못하고 덕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머리 좋은 사람으로 키우기 전에 덕을 좋아하고덕 을 즐겨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공자는 천재불용(天才不用)이라며, 덕 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는 공자와 황택(皇澤)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흙으로 성을 쌓고 놀고 있었다.

그런데 수레가 가까이 가도 아이는 비켜줄 생각(生覺)을 하지 않았다.

"얘야.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느냐?"

그런데도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 하 던 놀이를 계속하며 말했다.

"수레가 지나가도록 성이 비켜야 합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비켜 지나가야 합니까?"

아이의 말에 공자는 똑똑한 녀석이 라고 생각하며 수레를 돌려 지나가 려 했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았더니, 이름은 황택이며 나이는 8살이라 했다.

이에 공자는 한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느냐 하며, "바둑을 좋아하느냐?"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황택은 이렇게 말했다.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가 한가롭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닦지 않고, 농사꾼이 바둑을 좋아하면 농사일을 못하니 먹을 것이 풍요롭지 못하게 되거늘 어찌 그런 바둑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이의 대답에 놀란 공자는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냐고 하고는 "자식을 못 낳는 아비는 누구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허수아비"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무엇이냐?" "반딧불이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없는 물은 무엇이냐?" "눈물입니다."

아이의 거침없는 대답에 놀란 공자 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서며,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공자가 그렇게 하라고 이르자 아이 는 이렇게 물었다.

"아주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의 잎들이 말라 버렸는데 어찌 소나무만 잎이 푸릅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속이 꽉 차서 그럴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속이 텅 빈 저 대나무는 어찌하여 겨울에도 푸릅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런 사소한 것 말고 큰 것을 물어보아라"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다. "하늘에 별이 모두 몇 개입니까?" "그건 너무 크구나"

"그럼 땅 위의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것도 너무 크구나"

"그럼 눈 위의 눈썹은 모두 몇 개입니까?"

아이의 질문에 공자는 아무런 대답 을 하지 못했다.

공자는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여겨 아이를 가르쳐 제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하지만 공자는 아이가 머리는 좋으 나 덕(德)이 부족해 궁극(窮極)에 이 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 봤다.

그리하여 다시 수레에 올라가던 길 을 계속 갔다.

실제로 황택의 이름은 그 이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천재성은 8살에서 끝이 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머리로 세상을 산다고 생 각하지만 사실 머리가 세상에 미치 는 영향보다 가슴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머리에 앞서 덕을 쌓고 덕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갖 거짓과 모순(矛盾)과 악으로 넘쳐나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덕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 국·영·수 공부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덕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

■ 생활의 한자 ■

근고지영(根固枝榮)

根 뿌리 근
固 굳을 고
枝 가지 지
榮 영화 영

※ 뿌리가 튼튼한 나무라야 가지가 번영한다는 뜻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 CTN http://www.ctnedu.kr
참교육을 선도해가는 CTN 교육신문
2014년 9월 1일 (주간) 등록번호 충남, 다01378
발행·편집인 가금현 / 편집국장 한성진 / 인쇄 디엠코리아(주)
뉴스제보:041-631-8114 / 광고문의:080-631-8114 / 010-4222-9009
주소 :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225 엔젤스타워2차 309호
독자서비스센터 : 041-337-1791 / 팩스 : 041-337-1790
E-mail : ctn114@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ctnews.kr
구독료 : 월 1만2000원 / 자매지 월간충탑
본지는 충청탑뉴스(제호 CTN)가 발행하며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